

朝鮮後期 王陵 石人 彫刻 研究

김 은 선*

- I. 머리말
- II. 조선후기 왕릉 석물의 문헌규정과 석물의 배치
- III. 조선후기 왕릉의 '石手'와 '起壽'
- IV. 조선후기 왕릉 석인의 미술사적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왕릉 석물 조각은 왕권을 상징하고 장엄하는 陵墓制度의 주요 儀物이다. 조선시대 왕릉 석물들은 국가왕실의 조직적 주도 아래 당대의 솜씨있는 畫員과 장인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응집하여 역량을 발휘한 당대 문화의 정수이다. 특히 조선후기는 왕릉 석물 제작에 따른 일체의 작업과정을 기록한 山陵都監儀軌가 현전하여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 미술사연구의 주요 편년자료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하되, 장중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는 17세기와 170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 18세기의 왕릉 석인상을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중심으로 조각을 담당했던 石手(혹은 彫刻匠)와 현존하는 石人의 양식을 비교하면서 그 조성배경과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후기 왕릉 석물의 문헌규정과 석물의 배치

1. 조선후기 왕릉 석물의 문헌규정

조선시대의 國喪은 단순히 禮의 범위를 넘어 유교적 국가이념의 표방과 왕권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선왕이 죽고 현왕이 즉위하면 현왕이 선왕의 國葬, 殯殿, 山陵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왕권이 안정적으로 승계되었음을 내외에 표방하고자 한 것이며, 때로는 긴장을 조성하여 항거를 불능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五禮 중 凶禮가 가장 비중있게 진행되었다.¹

조선시대 왕릉 석물의 설치 기준이 제도상으로 확립된 것은 『經國大典』(1471)과 『國朝五禮儀』(1474)의 제정 이후이다. 특히 조선전기 『國朝五禮儀』의 규정에는 石室·屏風石·欄干石·石羊·石床·石望柱·長明燈·文石人·武石人·石馬 등 여러 가지 석물 종류와 설치방법, 위치, 치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² 그러나 이 규정이 나오기 60여 년 이전에 이미 조선시대 왕릉 제도는 太祖 健元陵(1408)에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태조 건원릉의 산릉공사와 석물 규정 등은 조선시대 왕릉 석조각의 전형을 확립하였고, 이를 문헌상으로 제도화한 것이 『國朝五禮儀』이다.

조선전기의 『經國大典』과 『國朝五禮儀』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의식이 생기고 개정될 내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영조 20년(1744)에는 尹汲으로 하여금 『國朝續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序例』를 편찬하게 하였고, 영조 22년(1746)에는 『續大典』의 편찬을 완간하여 법제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영조 27년(1751)에는 申晩으로 하여금 『國朝續五禮儀補』와 『國朝續五禮儀序例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 문헌들은 조선후기 왕릉 석물 설치의 문헌상 기준이 되었으며, 조선전기 『國朝五禮儀』 이후의 흥례의 변화과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다. 즉, 왕실 흥례의 간소화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그 중 『國朝

¹ 張慶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p.85.

² 「凶禮」「治葬」, 『國朝五禮儀』.

續五禮儀序例』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石室과 屏風石의 사용을 금하였는데, 이는 숙종의 특명으로 제거된 것이며 이후로는 이를 정식으로 하였다. 石羊·石虎·石馬·豎石·望柱石·長明燈石·文武石은 모두 규모의 高大가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규격을 감소하였다. 이는 숙종 27년(1701) 인현왕후 明陵의 석물을 厚陵의 제도에 준하여 검약하게 하도록 명하고, 을사년 懿陵의 석물도 또한 그 제도를 따르게 한 것에 준한 것이다. 기타 명기와 服玩, 비석 등 흥례제도 감소화의 전형을 만들었다.³

이에 따르면 영조 20년(1744) 『國朝續五禮儀』에 석물 규모의 축소화를 문헌화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40여 년 전인 숙종 27년(1701) 仁顯王后 明陵부터⁴ 석물 규모의 축소를 선실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현왕후 明陵(1701)은 좌문인석이 높이 167cm, 좌무인석이 172cm로 등신대의 크기이다. 이는 1688년에 제작된 인조계비 장열왕후의릉인 徽陵의 좌문인석이 높이 248cm, 좌무인석이 247cm이라는 거대한 조각상과는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대비된다. 더구나 이 두릉의 석물 제작을 책임진 石手 邊首는 둘다 李希善이다.⁵ 이는 같은 석수 변수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다른 시대양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8세기의 새로운 경향은 당시의 경제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17세기 大同法の 확대실시와 淸·日 간의 中繼貿易으로 넉넉하였던 국가재정이 숙종 30년경부터 청과 일본의 直交易이 발달하여 왕실재정이 어려워지고 영조 22년(1746)에는 중국제 비단의 사용을 억제하는 '禁緞令'을 내리는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⁶ 이러한 경향은 왕릉 조성에도 영향을 미쳐 18세기 초반 석물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영조 이후까지 이어져 17

³ 『國朝續五禮儀序例』 凶禮考異 治葬.

⁴ 明陵은 동원이강형식으로 한쪽 언덕에는 제19대 肅宗(1661-1720)과 제1계비 仁顯王后(1667-1701)의 쌍분이 있고, 다른 언덕에는 제2계비 仁元王后(1687-1757)의 봉분이 있다. 숙종은 숙종 46년(1720)에 승하하여 미리 비위 둔 인현왕후릉 우측에 쌍분으로 봉릉되었다. 따라서 현재 숙종과 인현왕후 봉분 앞의 석인은 인현왕후 산릉 조성 때 제작된 석인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제작연도는 1701년이고, 인원왕후 봉분 앞의 석인은 제작연대가 1757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明陵 내의 제작연대가 다른 석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인현왕후 명릉 석인(1701)과 인원왕후 명릉석인(1757)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⁵ 石手 邊首 李希善은 효종 寧陵(1673)부터 明陵(1701)까지 30년동안 문헌상 확인으로만 8개릉의 변수를 담당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석공이다.

『徽陵山陵都監儀軌』 大浮石所 工匠秩 石手 李希善(邊首) 崔天男(邊首).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 大浮石所 工匠秩 石手 李希善(邊首) 韓二忠(邊首).

⁶ 柳承宙, 『朝鮮後期 淸淸貿易小考』, 『國史館論叢』 제30집(국사편찬위원회, 1991), pp.217-218.



도 1 『國朝喪禮補編』(1752)의 문·무인석 圖說

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경향의 형식과 양식이 전개된다.

한편, 영조 28년(1752)의 『國朝喪禮補編』과 정조 12년(1787)의 『春官通考』에는 왕릉 석물의 각종 도설이 등장한다. 이 두 도설은 매우 유사하여 『國朝喪禮補編』을 참고하여 『春官通考』를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석인은 幞頭公服을 갖추고 홀을 들고 있는 형상이고, 무석인은 甲冑에 검을 든 형상인데 스케치 수준의 단순한 도상이다 도1.⁷ 각 도설에 적힌 석인의 치수를 營造尺 1척(31.24cm)을 기준으로 하여 미터법

으로 환산하면 문인석의 높이는 181cm이며 무인석의 높이는 194cm인데, 인현왕후 명릉 이후의 축소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의례에서의 석물 도설은 『顯隆園園所都監儀軌』(1789), 『健陵山陵都監儀軌』(1800), 『綏陵山陵都監儀軌』(1846) 등에서 꾸준히 나타난다.

이후 고종 7년(1870)에 『五禮編攷』를 편찬하여 재정비하면서 왕릉 석물은 근대적 풍모를 갖추게 된다.

2. 조선후기 왕릉 석물의 배치

國喪이 발생하면 國葬都監, 殯殿魂殿都監, 山陵都監의 세 도감을 임시로 설치하고 국상

⁷ 『國朝喪禮補編』圖說 治葬 文石人 文石刻冠帶執忽之象長五尺八寸二分廣上尺八寸九分下二尺一寸九分厚上尺六寸下尺九寸九分臺石入地

武石人 武石刻甲冑佩劍之象鞞在腰劍在手(刃向下)長六尺二寸廣上尺九寸四分下二尺二寸四分厚上尺八寸下尺九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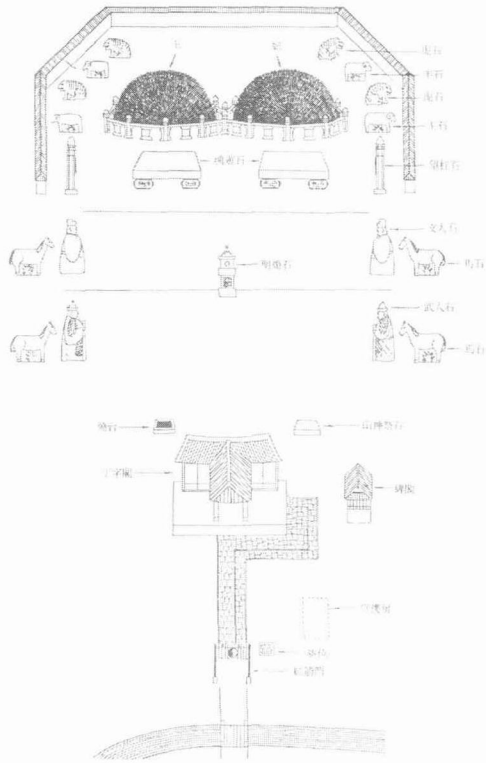
『春官通考』卷之八十六 凶禮 補編治葬圖說 文石人 文石刻冠帶執忽之象長五尺八寸二分廣上尺八寸九分下兩尺一寸九分厚上尺六寸下尺九寸九分臺石入地兩尺面與地齊

武石人 武石刻甲冑佩劍之象鞞在腰劍在手(刃向下)長六尺二寸廣上尺九寸四分下兩尺二寸四分厚上尺八寸下尺九寸四分臺石同文石

의 업무를 분장하였다. 도감의 최고 책임자인 都提調와 提調는 의정과 판서 등 고위 관원들이 맡으며, 그 아래 실질적인 작업을 관장하는 실무자인 郎廳은 관계 기관의 관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담당한다. 우선 국장도감은 葬儀 儀典의 집행과 喪輿, 朱簾 등을 제작하고 도감 내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빈전혼전도감은 襲殮과 成服, 魂殿의 설치와 祭器제작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山陵都監은 산릉 일대의 토목 공사, 매장과 봉축, 각종 石物의 설치, 丁字閣·攢宮 등의 시설물 건축, 조경 및 주변 정화사업 등의 업무를 맡았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후대에 이를 알리기 위하여 都監儀軌를 편찬하는데, 국상절차의 전말, 소요경비, 참가인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論賞 등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바로 국장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이다.

그 중 왕릉 석물의 제작을 담당한 곳은 山陵都監이다. 산릉도감 내에서는 다시 업무가 세분화되었는데, 총괄하는 都廳을 두고 그 이하에 三物所(봉축 담당), 造成所(건물 축조 담당), 大浮石所(큰 석물 조성 담당), 小浮石所(작은 석물 조성 담당), 爐冶所(각종 鐵物을 제작), 補土所(산릉 주위를 돋우고 잔디를 입히는 토목공사를 담당), 輪石所(석물을 운반하는 일 담당) 등을 두었다.⁸ 석물을 직접적으로 다듬고 조각했던 부서는 大浮石所와 小浮石所이다. 그 중 大浮石所는 欄干石, 屏風石, 石床, 長明燈, 望柱石, 文武人石, 馬石, 虎石, 羊石, 碑石 등 주요 석물을 제작하였고, 小浮石所는 地臺石, 磚石, 花階石 등을 제작하였다.

元陵 象設圖 (第21代 英祖大王· 憲妃 貞純王后 金氏)



도 2 영조 원릉(1776)의 상설물 배치도

⁸ 李迎春, "산릉도감",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왕릉의 개략적인 구조와 석물의 배치는 정형화되어 대체로 建元陵의 예에 따른다. 조선 후기 상설물의 배치도는 <도 2>와 같다. 입구에 홍살문을 세우고, 오른쪽으로는 정방형 평면의 배례석을 박석으로 깎는다. 앞쪽으로 난 神道의 정면에는 제사를 올리는 丁字閣을 세우고, 정자각을 지나기 전에는 원래 동·서 양쪽에 守僕房, 수라방 등의 건물을 세우고 정자각 뒤에는 신도비각을 동편에 세우나 시대나 지형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씩 변한다.

왕릉의 봉분은 정자각 뒤쪽의 높은 곳에 위치한다. 봉분에는 護石과 12면 欄干石을 두르고, 앞에는 床石을 놓으며, 봉분 둘레에는 석양과 석호가 교대로 4마리씩 왕릉을 호위하고, 그 아래 좌우측 양단에 망주석을 하나씩 세운다. 또한 봉분을 중심으로 배열된 부속물들 주위에 동·북·서향으로 꺾인 曲牆을 쌓는다. 그리고 한 단을 내려와 상석 앞에 장명등을 세우고 좌우 끝에는 문인석을 배치한다. 또 한단을 내려와 문인석과 같은 선상에 무인석을 세우고, 문인석과 무인석 뒤에는 석마를 세운다.

이러한 석물의 배치는 봉분을 중심으로 3개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데, 맨 위는 上階(一階), 중간은 中階(二階), 아래는 下階(三階)라고 구분지을 수 있고,⁹ 각종 석물은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는 조선전기 태조 건원릉의 구조를 그대로 계승한 형태로 전례를 따르려는 보수성과 함께 정형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III. 조선후기 왕릉의 ‘石手’와 ‘起畫’

1. 조선후기 왕릉 大浮石所의 ‘石手’

본 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조선후기 왕릉 석물을 조각한 장인은 ‘石手’이다. 이들은 국가소속의 工匠인데, 산릉도감의례에서는 ‘石手’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주로 都廳 이하의 大浮石所와 小浮石所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最古의 山陵都監儀軌인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1601) 「左右浮石所」에는 ‘石手’라는 명칭과 彫刻匠의 명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彫刻匠은 아로 새기는 장인 또는 器物을 조각하거나 글자를 刊刻하는 者로, 본래 彫刻房에 소속되어 있다가 세종 30년부터 尙衣院과 繕工監에 소속된 것으로 여

⁹ 金石臨, 「朝鮮時代 神道碑·墓碑 研究」(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歷史教育科 碩士學位論文, 1998).

겨진다. 石匠은 돌을 다루는 石手를 말하는데, 碑碣·礎石을 만드는 工人을 말한다.¹⁰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에는 조각장과 석수라는 명칭은 다른 부서에는 보이지 않고, 大浮石所와 小浮石所에만 있어 石人像의 조각은 그 두 장인류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石手와 彫刻匠의 차이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둘 다 浮石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돌을 다루는 일을 하였음이 명확하다. 다만 명칭을 구분한 것으로 보아 彫刻匠은 그 당시에는 石手보다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조각에 관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¹¹ 부석소 내에서의 彫刻匠 명칭은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모두 石手로 통일이 되어, 적어도 조선전기부터 17세기 전반까지는 부석소 내에서 石手와 彫刻匠으로 분리하여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²

왕릉 석물을 담당할 석수의 우두머리는 ‘邊首’이다. ‘邊首’라는 용어는 산릉도감의 계 중 ‘工匠秩’의 명단 주위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데, 石手의 경우 주로 1명에서 2명을 표기하였고, 邊首가 지정되지 아니한 부석소도 있으며, 좌우를 별도로 나누어 표기하거나 ‘都邊首’와 ‘副邊首’로 세분화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변수는 각종 도감 내에서 의물의 제작이나 장인들의 총지휘를 맡은 포괄적인 지도자로, 흔히 장인들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대표자가 그 자리에 올랐다. 建築工匠의 경우도 木手 중 건축공정의 우두머리를 邊首라고 불렀다. 건축의 경우 관영공사에서는 邊首로 표기하고 사찰공사에서는 片手로 표기하는데, 17세기를 경계로 邊首 또는 都邊首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18세기를 경계로는 都片手 등으로 변화된다.¹⁴ 따라서 관영공사의 각종 도감의 공장조직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은 邊首라는 말로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도감에 변수가 다 소속되었던 것은 아니고, 도감 중에서도 흥례 관련 도감이나 영건담당 도감의 작업이 기간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곳에 변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¹⁰ 『經國大典』卷六 工典 京工匠.

¹¹ 李環珣은 석수는 原石을 깨고 다듬는 일을 한다면 彫刻匠은 석물 위에 문양을 새기는 일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李環珣, 「朝鮮前期 陵墓 石人像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5, p.27).

¹² 이후 본 고에서 ‘石手’라는 명칭은 석수라는 匠色을 의미하는 말로, 17세기 전반기에 나타나는 匠色인 부석소에 서의 彫刻匠과 부석소의 石手를 통합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¹³ 1601년의 기록으로는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左右浮石所」 「左所用雜物秩」 石手 邊首 曹諤貞,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 「左右浮石所」 「左所用雜物秩」 彫刻匠 邊首 安孝元 등이 있고, 1673년도의 기록으로는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全 「大浮石所」 「工匠秩」 石手 李景立(邊首) 李希善(邊首), 1757년 『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 下 「大浮石所」 「工匠秩」 石手 朴弼心(邊首) 崔萬成(邊首) 등 다수의 기록이 남아 있다(표 1 참조).

¹⁴ 金東旭, 『韓國建築工匠史研究』(技文堂, 1993), pp.198-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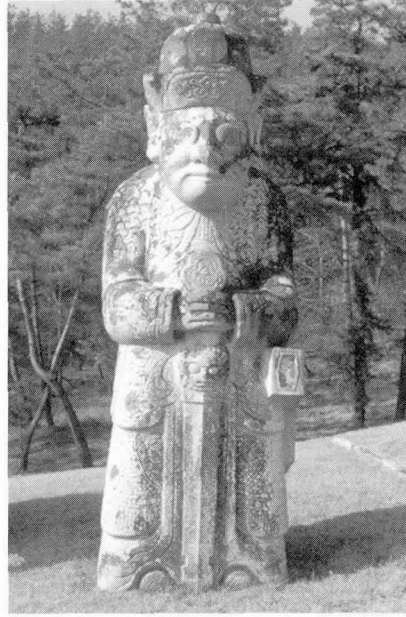
표 1 조선후기릉원 大浮石所 주요 石手(彫刻匠) 명단

石手 邊手	조성 년대	제작 릉	출전	石手 邊手	조성 년대	제작 릉	출전	
曹誌貞	1601	懿仁王后 稱陵	懿人王后山陵都監儀軌	趙金	1698	思陵	思陵封陵都監儀軌	
	1609	宣祖稱陵(개수)	稱陵改修儀軌	鄭金	1698	思陵	思陵封陵都監儀軌	
芮應辰	1601	懿仁王后 穆	陵懿人王后山陵都監儀軌	韓二忠	1699	莊陵	莊陵奉寧都監儀軌	
安孝元 (조각장)	1601	懿仁王后 稱陵	懿人王后山陵都監儀軌		1701	仁顯王后 明陵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安孝元	
	1609	宣祖稱陵(개수)	稱陵改修儀軌	1718	惠陵 문인석	端陵淑儀墓所都監儀軌		
金加應伊 (조각장)	1601	懿仁王后 稱陵	懿人王后山陵都監儀軌	鄭夢男	1718	永懷園	恩懷嬪奉寧都監儀軌	
					1729	永陵	(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河德成	1632	仁穆王后 稱陵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李天良	1718	惠陵 문인석	惠陵石勿追排都監儀軌	
朴金伊司	1632	仁穆王后 稱陵			1718	永懷園	恩懷嬪奉寧都監儀軌	
金許弄 (조각장)	1632	仁穆王后 稱陵		吳士俊	1722	惠陵 무인석	惠陵石勿追排都監儀軌	
					1725	景宗 懿陵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田士榮 (조각장)	1632	仁穆王后 稱陵		1729	永陵	(孝章世子)墓所都監儀軌		
曹未龍	1645	昭陵園		(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	安世雲	1722	惠陵 무인석	惠陵石勿追排都監儀軌
					崔尙令	1725	景宗 懿陵	(景宗)懿陵山陵都監儀軌
姜福只	1645	昭陵園			禹興民	1730	宣懿王后 懿陵	宣懿王后山陵都監儀軌
金億淵 (조각장)	1645	昭陵園			金翊男	1730	宣懿王后 懿陵	宣懿王后山陵都監儀軌
					禹聖得	1739	溫陵溫陵封陵都監儀軌	
安仁男 (조각장)	1645	昭陵園	朴弼心		1757	弘陵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1757	仁元王后 明陵	(仁元王后)山陵都監儀軌	
李景立	1673	孝宗 寧陵	(孝宗寧陵)寧陵都監都監儀軌		崔萬成	1757	弘陵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1674	仁宣王后 寧陵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1757	仁元王后 明陵	(仁元王后)山陵都監儀軌
	1674	顯宗 崇寧陵	顯宗崇寧陵山陵都監儀軌			1776	元陵	元陵山陵都監儀軌
李希善	1673	孝宗 寧陵	(孝宗寧陵)寧陵都監都監儀軌	(金大輝)	1786	孝昌園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1674	仁宣王后 寧陵	(仁宣王后寧陵)山陵都監儀軌		1789	隆陵	顯穆顯穆園儀軌	
	1674	顯宗 崇寧陵	顯宗崇寧陵山陵都監儀軌	(趙世柱)	1776	元陵	元陵山陵都監儀軌	
	1680	翼陵	(仁慶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成尙偉)	1786	孝昌園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1688	徽陵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	(鄭有福)	1789	隆陵	顯穆顯穆園儀軌	
	1699	莊陵	莊陵奉寧都監儀軌	(金重世)	1800	健陵	健陵山陵都監儀軌	
崔天男	1701	仁顯王后 明陵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		1800	健陵	健陵山陵都監儀軌	
	1680	翼陵	(仁慶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1683	明聖王后 崇寧陵	(明聖王后崇寧陵)山陵都監儀軌					
	1688	徽陵	(莊烈王后徽陵)山陵都監儀軌					

※ 石手 邊手는 각릉마다 都監邊首·副邊首 2인을 선정하였으며, ()친 명단은 邊手라고 기록이 안 된 石手이지만 우두머리역할을 하였던 최상단에 기록된 石手이다.



도 3 孝宗 寧陵 문인석, 1673년



도 4 孝宗 寧陵 무인석, 1673년

의뢰에 나타난 각색 장인들 중 가장 많이 변수에 오르는 장색은 木手, 石手, 冶匠, 彫刻匠, 泥匠 등의 순이었다.¹⁵ 이들 각각의 장인들은 동원된 인원이 많아서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의 순서나 일의 진행속도에 따라 책임자의 지휘체계 아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체제와 명령계통이 확실해야 했기 때문에 변수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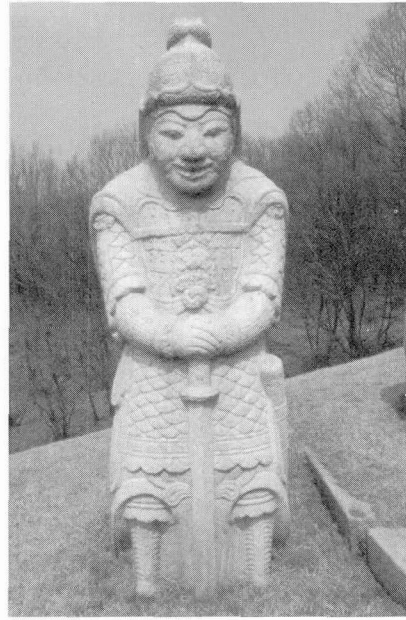
이 중 왕릉 석물을 담당한 석수변수는 조각적 솜씨를 요구하는 의물을 조성하는 책임자였으며, 그들은 선왕과 현왕이 거주하는 능묘와 궁궐 석의물의 조형을 책임졌다. 실제로 조선후기 산릉도감의뢰에서 각 浮石所에는 석수가 '변수'로 거의 빠짐없이 지정이 되고, 변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두머리급 인물의 이름을 제일 먼저 거론함으로써 작업의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석소에 속한 석수 변수 및 제일 먼저 거론된 석수는 석물 조각을 주도하는 주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大浮石所 石手와 彫刻匠의 邊首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조선후기 왕릉 산릉도감의뢰에서 보이는 石手와 彫刻匠은 크게 4그룹으

¹⁵ 張慶姬, 「朝鮮王朝 王室嘉禮用 工藝品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p.92.



도 5 貞聖王后 弘陵 문인석, 1757년



도 6 貞聖王后 弘陵 무인석, 1757년

로 분류할 수 있다. 주로 17세기 후반의 李景立·李希善·崔天男 그룹, 18세기 초반의 鄭夢男·李天良·吳士俊 그룹, 18세기 중후반의 朴弼心·崔萬成 그룹, 金大輝·鄭有福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장인그룹의 변화는 석인의 시대별 양식변화와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중 17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석수 변수는 李希善이다. 이희선은 1673년 孝宗 寧陵부터 1701년 仁顯王后 明陵까지 문헌상 확인으로만 8개 룡의 변수를 맡았는데, 조선시대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중요한 石手이다. 이희선이 변수를 맡아 제작된 17세기 후반 작품은 규모가 장대하고,¹⁶ 왕릉 석인으로서의 위엄과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도3.4. 관모를 포함하면 약 3:1의 신체비례에 사각주형의 형태이지만 선처리가 정연하고, 생략과 대칭을 거듭하여 단순하지만 강인하다.

이러한 양식은 1701년 인현왕후 明陵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17세기와는 다른 양식이 형성된다. 그 중 朴弼心, 崔萬成은 弘陵(1757)과 仁元王后 明陵(1757)의 두 작품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18세기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대표작이다^{도5,6}. 두 룡 석인

¹⁶ 孝宗 寧陵(1673)은 좌문인석이 290cm, 좌무인석이 310cm이고, 崇陵(1674)은 좌문인석 280cm, 우무인석 278cm이다.

은 비슷한 시기에 서오릉이라는 같은 장소, 같은 석수 변수에 의해서 제작되어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2미터 정도의 아담한 규모에 頭部가 축소되어 약 4:1의 신체비례를 지닌 상으로, 어깨의 둥근 곡선과 겨드랑이의 굴곡, 부드러운 옷자락 등의 곡선미가 매우 유연하다. 또한 정교한 세부표현 및 갑옷의 표현에서 전대와는 다른 실제적 복식 도상이 적용되어 세련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18세기 후반의 金大輝, 鄭有福에게도 계승되어 조선후기 문화의 절정기의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英祖 元陵과 莊祖 隆陵, 正祖의 健陵 등을 조성하였는데, 왕릉에서는 최초로 문인석에 양관조복이 나타나는 등 좀처럼 변하지 않는 왕릉제도에 일대 변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석수변수들은 왕릉뿐만 아니라 궁궐이나 기타 건축물들에서 필요로 하는 석작업에는 모두 같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주로 관장인 경공장의 경우인데, 1757년-1801년에 활동하고 건릉의 변수였던 鄭有福은 正祖 殘殿魂殿都監(1800)이나 正宗 大王胎室石欄干 조성(1801)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현릉원의 소부석소 석수인 韓時雄은 華城城役(1796)에도 변수로 참여하고, 현릉원원소도감의 변수였던 尹時文은 園幸乙卯整理儀軌(1795)와 華城城役(1796)에도 참여한다. 현릉원원소도감의 변수였던 安光賢은 西關營建都監(1831)에도 이름이 보이고 있고, 순조인릉의 변수였던 朴元哲은 西關營建都監(1831), 昌德宮營建都監(1834), 宗廟永寧殿增修都監(1836) 등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 왕릉 석수 변수들은 왕릉 석물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에 보이는 돌을 다루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였고 매우 포괄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릉도감 대부석소에 동원된 석수의 인원은 대체로 100여 명이 넘는다. 가장 많은 석수가 동원된 릉은 莊烈王后 徽陵(1688)으로 大浮石所에만 모두 166명이 참여하였고 기타 소규모의 園이나 墓를 조성할 때나, 왕비나 추봉 릉의 경우는 대체로 60-80명의 제작인원이 참여하였다.¹⁷ 예를 들어 明星王后 崇陵은 顯宗 崇陵과 합장 쌍릉이기 때문에 혼유석 및 난간석 등의 석물만 추가한 간단한 경우로 총 65명의 인원과 2달 정도의 일정이 소요되었다.

石物의 제작기간은 대체로 4-8개월 이상이 소요된 걸로 추정된다.¹⁸ 그러나 실제로는 돌

¹⁷ 대부석소 참여 석수 인원은 莊祖 隆陵(1789) 159명, 仁顯王后 明陵(1701) 148명, 仁慶王后 翼陵(1680) 147명, 仁宣王后 寧陵(1674) 146명, 正祖 健陵(1800) 145명 순이다.

¹⁸ 『懿仁王后山陵都監儀軌』는 1600년 8월부터 1601년 3월까지 8개월간의 기록이고,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는 163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仁祖長山陵都監儀軌』는 164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기록이다.

아가면서 부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그 기간에 다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明星王后) 山陵都監儀軌』 「大浮石所」에 의하면 “石手七十名四十日赴役後二十名減去只五十名赴役而魂遊石改浮出時 十八名又爲推提十五日赴役”(처음 70명이 40일 동안 부역하다가 20명이 돌아갔으나 다시 18명이 15일 동안 부역했다)이라고 나와 있어 부역 인원의 유동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 외 석수의 제작 인원수와 기간은 그 당시의 기후와 거리 등의 여건에 따라 약간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왕릉 석물 제작에 참여한 석수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석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창의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얼굴의 이목구비 표현이나 수염, 손의 표현 등 부분적으로 같은 변수가 제작한릉 석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화원의 도설과 起畫

조선후기 왕릉 조성의 산릉도감에는 畫圖도 참여하였다.¹⁹ 산릉도감에 참여했던 화원들은 능묘의 건물에 걸릴 御製懸板의 起畫나 릉 주변에 세워지는 각종 석물의 起畫도 맡았으며, 각종 寶印을 담는 齣과 冊文이나 敎命을 담는 函櫃의 겉면을 장식하거나 정자각이나 비각의 단청그림을 그렸다.²⁰

산릉도감에 소속된 화원들은 畫員, 畫師, 畫僧으로 분류되어 조성소, 부석소, 分掌興庫, 삼물소 등에 소속되어 그림을 그렸다. 그 중 대부석소에 소속된 화원의 ‘起畫’란 제작단계에서 석물의 도상과 종류, 형태, 치수 등의 밑그림과 마무리단계에서 후일에 참고로 삼기 위해 만드는 의례의 도설을 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물의 도상과 종류, 형태, 치수 등을 실수 없이 제작하기 위해서 실제 조각을 진행하는 현장에서의 밑그림 역할을 한 起畫는 중요한 작업 공정 중 하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儀物이 지닌 이념적인 내용을 그림과 설명으로 도설화해 두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 儀物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왕실행사를 차질없이 진행시키

¹⁹ 조선시대 五禮의 權設都監에는 화원이 참여하였다. 이들 화원은 嘉禮都監, 殯殿魂殿都監, 影幀模寫都監, 冊禮都監 등에 참여하여 班次圖를 그리거나 서책의 행간에 줄을 긋는 印札을 하거나 건물의 단청그림을 그렸다.

²⁰ 朴廷蕙,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圖」, 『미술사연구』 제9호(미술사연구회, 1995), p.209.

기 위해서는 석물을 제작하는 데 한치의 오차나 차질이 없도록 도설이나 도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설명도 부가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 일을 화원이 하였고 제작단계에서는 起畫에 참여하였고, 마무리단계에서 화원은 의뢰의 도설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¹

산릉도감 대부석소에 소속된 화원의 명단은 <표 2>와 같다. 룡의 석물을 그린 화원들의 그림은 대부분 현전하지 않아 왕릉 석인의 양식과 형식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대부석소 제작과정에서 화원이 같이 작업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화원들은 산릉도감뿐만 아니라 五禮에 관련된 왕실용 물품의 제작이나 건축 조영에 관련된 起畫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石手의 경우와는 달리 왕릉 석인의 기화와 관련된 유파나 화원그룹의 형성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원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장명등의 대좌가 호족형태로 바뀌는 시점이 18세기 중반인데, 이는 공예를 그리던 화원들의 기화가 적극적으로

표 2 大浮石所에 소속된 畫圓과 활동시기²²

화원의 이름	활동년대	起畫 룡 이름	제작처	출진
韓善國	1649	인조장릉석물	우부석소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李起龍	1659	효종영릉석물	좌목(석물기화임시출거)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張子房	1701	인현왕후명릉석물	좌목(석물기화)	(仁顯王后)山陵都監儀軌
許倣	1722	혜릉석물	부석소	惠陵石物追排都監儀軌
許任	1730	선의왕후석물	조성소, 대부석소, 마석소	(宣懿王后)懿陵山陵都監儀軌
許確	1789	현릉원석물	대부석소	顯慶園園所都監儀軌
金景斗·金命遠	1805	원릉석물	대부석소	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儀軌
金應洙	1821	건릉석물	대부석소(석물기화)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尹命周	1823	휘경원석물	조성소, 대부석소(석물기화)	徽慶園園所都監儀軌
張駿良	1835	인릉석물	대부석소 石刻看役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1849	헌종경릉석물	석각	憲宗景陵山陵都監儀軌
朴基駿	1843	경릉석물	대부석소 石刻看役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劉運弘	1846	수릉석물	대부석소 石刻看役	文祖綏陵山陵都監儀軌
金永俊	1855	문조수릉석물	석각간역	文祖綏陵遷奉都監儀軌
李世玉	1864	철종예릉석물	석각간역	哲宗睿陵山陵都監儀軌
金信學	1897	명성왕후홍릉	대부석소 화원	明星王后洪陵山陵都監儀軌

²¹ 嘉禮都監儀軌의 경우도 행사에 쓰이는 수많은 의물들을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제작하고, 또 후대에 본을 남기기 위하여 미리 기화를 하였다.

²² 대부석소 이외의 조성소 등의 화원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석물에도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도감의례로서는 1789년 『顯隆園園所都監儀軌』에 처음으로 석인의 도설이 나타나는데, 화원 許確¹³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도설은 정면향인 석인과 달리 얼굴과 신체를 약간 우측으로 틀고 있어 초상화와 같은 형태이다. 자세한 세부 표현을 한 석인에 비해 대략적인 스케치 정도의 도설이지만 양관과 조복을 입은 문인석의 도상이나 투구의 정개가 삼지창형태로 표현한 점이나 갑옷의 모습 등 같은 도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조 健陵(1800) 산릉도감의 대부석소 소속 화원 金應洙와 文祖 綏陵(1846) 산릉도감 대부석소 소속 화원 劉運弘은 실제 현전하는 健陵과 綏陵 석인과 유사하여 18-19세기에 이르면 석물제작에 있어서 대부석소 소속 화원의 역할이 점점 증대됨을 알 수 있다.

IV. 조선후기 왕릉 석인의 미술사적 특징

1. 조선후기 왕릉 석인의 도상

조선시대 왕릉 석인의 도상은 문인석과 무인석으로 나눌 수 있고, 기타 石獸와 장명등, 망주석, 護石 및 병풍석 등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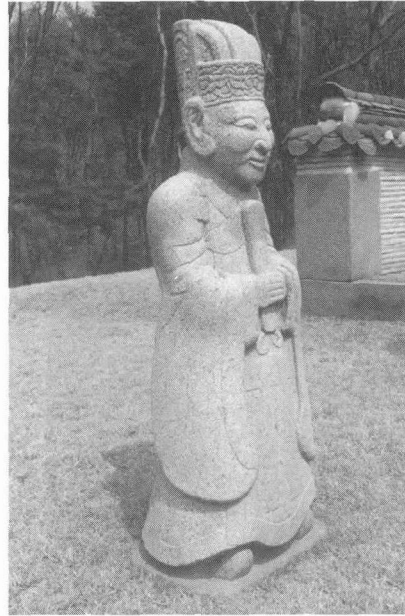
文人石은 官服을 갖추고 笏을 가슴에서 모아 권 생존에 侍衛했던 실제 文臣의 형상을 도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문인석은 冠帽와 冠服의 종류에 따라 크게 幘頭公服을 갖춘 형식과 梁冠朝服을 갖춘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幘頭公服을 갖춘 형식은 공복을 입고 머리에 복두를 쓰고 홀을 든 형상이다¹⁴. 公服은 百官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禮服 즉, 官員服의 총칭이다. 王陵에서는 15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복두공복형식이 대부분인데, 조선시대 왕릉 문인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상이다. 복식사의 연구에 의하면 왕릉 문인석에 보이는 公服은 우리나라 公服의 형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²³ 머리에 쓰는 복두는 그 각의 형태에 따라 展脚幘頭, 交脚幘頭, 下垂形 幘頭로 분류하는데, 조선후기 문인석의 복두는 예외없이 모두 양각이 평행한 展脚幘頭의 형태이다. 전각복두를 조각으로 표현했을 때는 복두 뒷면이나 측면에 걸쳐 둥글거나

²³ 金美子, 「우리나라 公服에 관한 研究」, 『복식』 6호(한국복식학회, 1982), p.173, pp.187-188.



도 7 복두공복형식, 翼陵 문인석, 1681년



도 8 양관조복형식, 綬慶園 문인석, 1764년

모진 脚을 U자형 혹은 직각형태로 표현한다. 다만 弘陵(1757)의 경우, 복두 뒷면에서 옆면을 향해 평행으로 뻗치도록 양각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한편 18세기 왕릉 문인석 도상에서 보여주는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무이다. 무란 공복, 단령 등 남자 윗옷의 트임이 있는 옆면에 활동의 편리를 위해 덧댄 부위인데²⁴ 주로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고 초상화에서 자주 표현된다. 왕릉에서는 1701년 仁顯王后 明陵부터 끝이 뾰족한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이후의 왕릉에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시대구분의 명확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18세기 초반에는 관대 위로만 표시되다가 18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관대 이하로까지 길게 표현되는 시대적 변천을 보이기도 한다.

1789년 隆陵에서는 梁冠朝服형식이 등장한다.²⁵ 양관조복형식은 조복을 입고 양관을 머

²⁴ 金英淑 編著, 『한국복식문화사전』(미술문화, 1998), pp.165-166.

²⁵ 隆陵은 원래 1776년 永佑園으로 조성되었다가 1789년에 경기도 화성으로 천장하여 顯隆園으로 개칭하고, 1821년에 또다시 이전하였다. 隆陵이라는 陵名은 1899년에 개명하였기 때문에 용릉석인의 제작연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顯隆園園所都監儀軌』에 의하면 현릉원 때 다시 석물을 제작하였고 1821년의 이장 때에는 석물을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기록에 의해 용릉의 제작연대는 1789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 隆陵의 석인은 원래는 룡의 격보다 원의 격으로 조성된 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9 眞聖王后 弘陵 무인석, 묶음 소매, 175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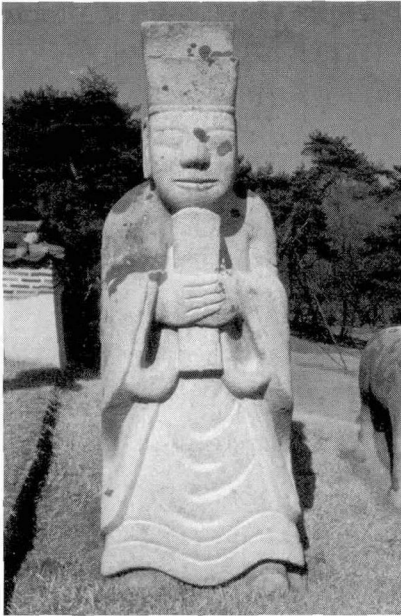
리에 쓰고 홀을 든 형상이다. 조복은 大祀, 경축 일, 정월초하루, 冬至 및 詔勅을 반포할 때나 表를 올릴 때 입을 百官의 官服이다. 관모로는 梁冠(金冠)을 착용하고 뒤에는 後綬, 佩玉 등을 화려하게 부착한다. 梁冠은 金色 縱線인 梁을 冠상부의 전면으로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덧붙인 冠으로 金冠이라고도 한다. 원래 양관은 품계에 따라 량의 수가 다른데, 隆陵의 경우 四梁冠을 지니고 있고, 대한제국기에 조성된 洪陵(高宗陵, 1919)과 裕陵(純宗陵, 1926)은 황제를 칭했기 때문에 七梁冠을 갖추고 있다. 弘陵(1757) 석인 이후에는 梁冠을 매우 실감나고 화려하게 묘사하는데, 冠武에는 쌍학이나 화문 등을 화려하게 시문하고 목잡은 원문이나 화문으로 장식한다. 특히 용건릉에 보이는 後綬의 雲鶴文과 패옥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여 현실의 복식을 그대로 반영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왕릉 석인의

양관조복형식은 일반 사대부 묘의 양관조복형식이 16세기에 등장하는 것에 비해 매우 늦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왕릉에서는 18세기 후반 이후 등장하여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무인석은 양관조복형식으로 변화된다^{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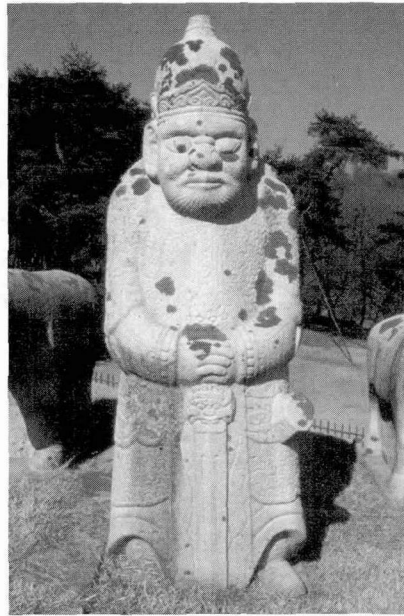
武人石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검을 짚은 武官의 모습을 도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무인석은 갑옷 戰袍의 소매자락 표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투구는 정개의 모습에 따라 보주형 장식의 투구와 삼지창형 장식의 투구로 분류할 수 있다. 무인석이 착용한 갑주는 전쟁시 사용했다기보다는 외국 사신을 맞거나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착용한 儀仗用이라 보여진다.²⁶

조선시대 대부분의 무인석은 갑옷 戰袍의 소매자락이 빠져나와 바람에 휘날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조선전기 舊英陵(1446) 및 文宗 顯陵(1452)부터 弘陵(1757) 이

²⁶ 김정자, 『한국 군복의 변천사 연구』(민속원, 1998).



도 10 徽陵 문인석, 1688년



도 11 徽陵 무인석, 1688년

전까지는 모두 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도식화되어,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도식화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18세기 弘陵(1757) 이후 元陵(1776) 등에서는 이런 표현은 사라지고 활동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포의 소매를 매듭식으로 묶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런 묶음 소매 형식은 고려 玄正陵과 15세기 建元陵, 獻陵에서 보이다가 그 뒤 사라졌던 형태인데, 18세기에 다시 등장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²⁷. 왕릉 석인에서의 묶음 소매가 표현된 무인석 갑옷은 戰袍 위에 부속구를 착용하고, 겨드랑이와 배래선을 봉합하여 어깨와 등에 戰袍가 드러날 뿐 등에 갑옷의 문양이 표현되지 않는다. 매듭의 형태는 매우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胸甲, 背甲의 소슬금문과 운문, 어린문 등을 실감나게 새겨넣었다.

결론적으로 18세기 왕릉 석인조각의 도상 특징은 조선시대 복식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복의 佩玉과 後綬의 표현은 실제 복식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정교하며, 鞞帶의 늘어진 모습과 무의 변천 과정 등은 매우 실제적이다. 게다가 무인석 투구

²⁷ 박가영은 이런 형태의 갑옷을 裋甲(갑옷 위에 袍를 덧입는 착용방식)이라 보았다(박가영,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99).

頂帽의 표현이 보주형에서 삼지창형으로 변하고 귀가리개가 머리 뒤에서 자연스럽게 매듭지어져 현실의 복식문화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2. 조선후기 왕릉 석인의 양식적 특징

조선의 왕릉 석물은 1492년 太祖 健元陵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따른다는 원칙 아래 조성되어 매우 보수적이며 형식 및 양식변화가 타 미술분야에 비해 폭넓지 못하다. 건원릉 이래로 조선 왕릉 석인은 사각주형의 둔중하고 평판적인 입상을 기본 형태로 지니고 있고, 이러한 형태는 후기까지 장기간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조선 전기에 비해 얼굴표현이 더욱 세밀해지고, 문양과 복식 표현이 한층 섬세하고 정교해진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더욱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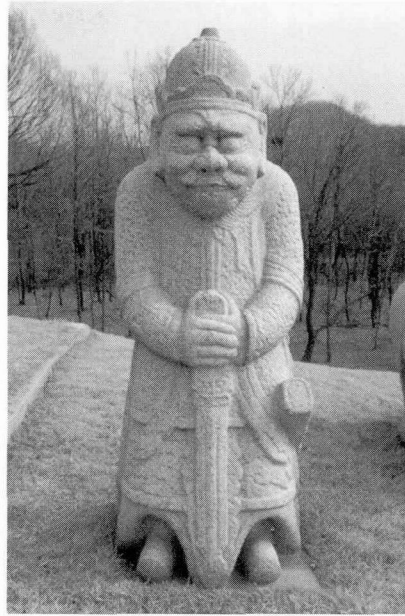
조선후기 왕릉 석인의 양식적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7세기, 18세기 초반, 18세기 중·후반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선시대 왕릉 석인의 양식적 시대변화는 <표 1>의 석수 변수 그룹의 변화와 일치하여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조각사 중 절대연대가 명확하고 작가군이 밝혀진 흔치 않은 주요한 조형물로, 같은 시대 불교조각과의 편년비교가 가능한 의미깊은 조각이라 생각된다.

17세기는 선이 굵고 단순한 형태의 거대하고 위엄 있는 석인들이 유행하였다. 석수그룹 변수 李希善, 李景立, 崔天男 등이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석물로는 17세기의 寧陵 석인(1673·1674), 崇陵(1675)과 翼陵(1680), 徽陵(1688) 등인데, 각주 형태의 방형의 블록구도를 반복적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석물이라고 할 수 있다^{3, 4, 7, 10, 11}. 이 시기의 석인은 조선시대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가장 넓은 시기에 걸쳐 제작하여 도식화가 다소 진전되고 괴체적 느낌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장대하여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능력을 수호하는 강인한 벽사적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측면에서 살펴보면 콧등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이루었고, 각진 복두와 구부린 팔의 90도 각도가 강조되어 경직된 구조를 지닌다.

석인의 비례는 17세기 전반부터 18세기 초반 정도까지는 冠帽를 포함하여 약 3 : 1의 신체비례로 頭部의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冠帽나 투구를 유난히 높게 조성하고, 흉과 손 등은 크게 만들어 강조하였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17세기는 장대한 크기와 손과 얼굴의 강조 등 보다 웅장하고 위엄이 있는 강인한 수호자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다.



도 12 仁顯王后 明陵 문인석, 17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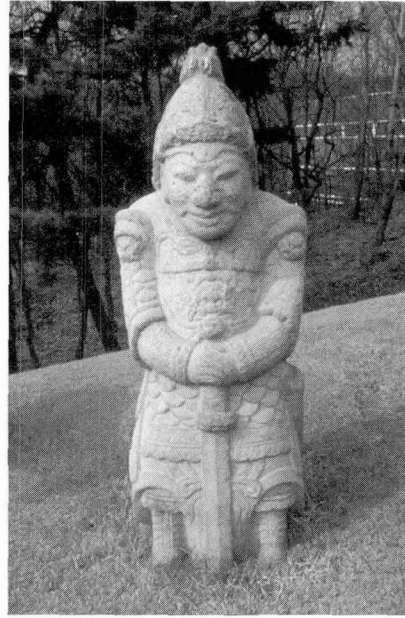
도 13 仁顯王后 明陵 무인석, 1701년

이에 비해 이목구비의 표현은 생략적인 인체묘사와는 대비가 될만큼 개성적인 얼굴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인석은 준수하고 세련된 용모를 지녔고, 무인석은 늙은 용모를 지니고 있어 문무관의 주요 특성을 명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長陵(1635) 문인석과 무인석은 매우 준수하고 세련된 얼굴을 지녔으며, 이후 仁顯王后 明陵(1701)은 작고 가는 눈꼬리와 선명한 눈동자, 곧은 코와 작고 야무진 입술, 정교한 귀의 표현은 단순한 인체표현에 비해 매우 공을 들인 면모를 보인다.

18세기 초반은 17세기와 18세기 중후반 사이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지닌 시기이다. 규모가 등신대와 유사해지고, 17세기와 18세기 중후반의 특성이 공존하는 시기이며 대표적인 석수는 鄭夢男, 李天良, 吳士俊 등이다. 대표적인 석물로는 仁顯王后 明陵(1701), 惠陵(1722), 永陵(1729), 景宗 懿陵(1725), 宣懿王后 懿陵(1730) 등이다^{도12,13}. 이 시기는 조선 후기 왕릉 석인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1701년 인현왕후 明陵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우선, 석물의 간소화 경향이 짙어지는데, 이전의 장대하고 단순한 석물을 보다 인체에 가까운 정교하고 자유스러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규모의 간소화 경향은 앞서 언급한 당시 왕실의 어려운 재정상황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전례는 1744년 『國朝續五禮儀』와 『續大典』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로서 문헌상에 확립되어 조선 후기 흥례



도 14 仁元王后 明陵 문인석, 175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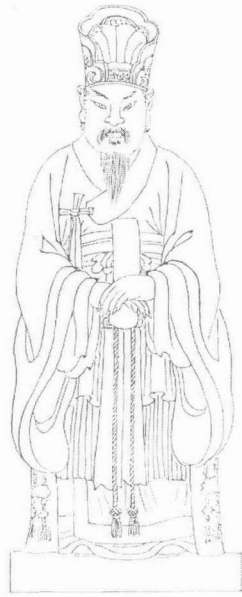
도 15 仁元王后 明陵 문인석, 1757년

제도의 근간을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사각주형을 지니고 있지만 작은 규모이니만큼 어깨와 허리 굴곡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17세기의 굽직한 선 표현이 다소 완화되고 부드럽게 변화된다. 문인석에서는 뚜렷한 이목구비의 표현은 여전하지만 눈매를 좀더 가늘고 길게 새겨넣고, 눈동자의 굴곡을 깊게 새기기 시작했으며 눈썹, 입매, 귀의 표현 등이 유선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공복의 뒷부분에서 끝이 뾰족한 사다리꼴 형태의 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주로 요대를 중심으로 상반신에만 나타나고 있어서 특이하다.

18세기 중·후반은 영·정조 시대의 풍부한 문화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경향이 정착되었고, 다양한 변화가 시도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석수로서는 18세기 중반의 朴弼心, 崔萬成 등과 18세기 후반의 金大輝, 鄭有福 등으로 조선후기 문화의 절정기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물로는 貞聖王后 弘陵(1757), 仁元王后 明陵(1757), 綏慶園(1764), 英祖 元陵(1776)과 莊祖 隆陵(1789), 正祖의 健陵(1800) 등을 조성하였는데,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미가 특징이고, 이 시기에 왕릉에서는 최초로 양관조복 문인석이 등장하는 등 좀처럼 변하지 않는 왕릉제도에 일대 변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 말 이후에는 산릉도감의례에 석물의 도설이 잔존하여 실제 석물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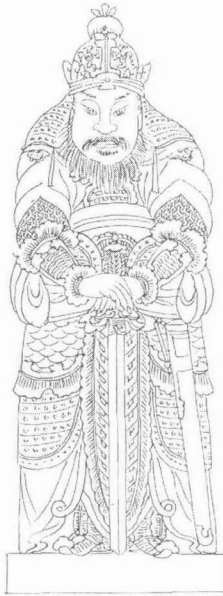
도 16 健陵 문인석, 1800년



도 17 『健陵山陵都監儀軌』의 문인석 圖說



도 18 健陵 무인석, 1800년



도 19 『健陵山陵都監儀軌』의 무인석 圖說

기이기도 하다^{도5,6,8,9,14,15,16,18}.

이 시기도 사각주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얼굴과 홀을 든 가슴 부분이 등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측면에서 보면 배를 쭉 내민 형태이고, 어깨, 허리 등의 굴곡이 보다 원만하여 자연스러운 인체를 표현하고 있다. 弘陵(1757)이나 仁元王后 明陵 석인(1757)의 경우 측면의 구도는 아직까지 일직선의 경직된 사각구도를 보이거나 목이 점점 드러나고, 유선형의 이목구비나 둥근 어깨선과 굴곡진 허리, 움푹 패인 겨드랑이의 굴곡, 신체라인을 따라 하체로 갈수록 점점 퍼지는 袍의 끝자락 등은 보다 유연하다. 이런 경향은 왕릉보다 소규모로 제작되었던 懿寧園(1752)이나 綏慶園(1764) 등의 석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도8}. 이 시기의 양식은 왕릉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의 園, 墓에도 큰 영향을 미쳐 유사한 양식의 석물이 다수 제작되었고, 일부 왕실에서 활약한 석수들의 솜씨가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비례적으로는 18세기 중반 弘陵(1757) 이후부터는 3.5-4.5:1의 보다 자연스러운 비례에 허리선이 상승하여 하체가 길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얼굴과 손의 크기도 작아져 안정적이며 자연스러운 구도를 이룬다. 이러한 표현기법의 변화는 석물규모의 축소로 인한 조각 표현의 자유스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18세기 풍부한 문화적 발전이 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기도 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데, 仁元王后 明陵 석인(1757)은 특히 귀의 표현이 섬세하면서도 실제적이고 隆陵 석인(1789)은 수염의 한올 한올을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정면에서 보면 귀의 형태와 귓바피가 모두 보이던 17세기 계단식 표현의 귀의 각도는 18세기 후반에는 얼굴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젖혀졌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소매의 표현방법이다. 17세기의 문인석은 양쪽 소매가 거의 八字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측면까지 옷자락이 돌아가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弘陵(1757) 이후에는 11자형으로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밑으로 늘어지고, 소매자락의 중의도 얇고 자연스러워지며 끝자락도 둥글리는 등 입체감이 증가되어 시대에 따른 양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포플단 자락이 바람에 날려 살짝 반전된 모습은 발달하면서도 전체 석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무인석에서도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옆에 늘어뜨린 검집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세부 문양도 형식적인 소슬금문이나 구름문보다도 실제로 갑옷의 비늘을 표현한 어린문을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1800년에 제작된 健陵의 석인들은 건릉도감의뢰에 나타난 도설과 매우 유사하여 흥미롭다^{도16-19}. 이 석인은 용릉을 제작하였던 金大輝, 鄭有福 석수에 의해 용릉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8세기 후반보다 얼굴이 다소 커지고 어깨가 위축되었으며, 다소 경직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릉 석인은 다시 2.5m 이상의 거대한 상으로 조

성되었는데, 이는 정조의 효성의 발로로 조성된 거대한 규모의 莊祖 隆陵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건릉산릉도감의궤』에 나타난 도설은 화원 金應洙의 그림으로 보이는데, 조복이나 갑옷의 표현은 실제 석인의 도상과 흡사하고, 특히 무인석의 몸 쪽으로 깊이 들어간 목과 움츠린 어깨의 표현은 매우 유사하여 의궤 제작시 실견하고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

19세기에 이르면 왕릉 석물 조각은 근대적 양상을 가미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된다.²⁸ 조각의 형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도상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1846년의 문조수릉은 두부가 몸 쪽에 깊숙이 들어가 어깨가 심하게 움츠러진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19년 명성왕후 洪陵과 1926년의 순조 유릉에 이르면 중국식 황제릉의 형식을 갖추어 왕릉 석물 제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V. 맺음말

왕릉 석물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조각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조각사가 불교조각 중심으로만 연구된 것에 비해 또다른 사상적 배경을 지닌 조각으로 다른 각도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방형의 형태미가 왕릉조각에도 충실히 반영된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즉 평면적 소형, 둔중한 기둥식 구도, 사각형의 얼굴형태는 조선 불교조각사의 양식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 왕릉 석물조각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왕릉 석물은 조선시대 조각사를 대표하는 수준높고 격조 있는 조각이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조각품이다. 특히 17세기에는 넉넉한 왕실재정을 배경으로 寧陵(1674), 崇陵(1675)과 翼陵(1680), 徽陵(1688) 등의 장대하고 웅장한 석인들이 조성되었다. 또한 18세기 英祖代 이후에는 풍성한 문화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弘陵(1757), 明陵(1757)이라는 엄격한 왕릉에서는 보기 힘든 유연한 조각상을 만들었다. 또한 이 시기는 조복이나 갑옷의 세부문양이 정교하며 현실의 복식형태를 반영한 특징이 있다.

둘째, 1701년 明陵을 기점으로 하여 석물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왕실의

²⁸ 조은정, 「20세기 황제릉 조각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제6집(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8).

어려운 재정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전례는 1744년 『國朝續五禮儀』와 『續大典』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로서 확립되어 조선후기 흥례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셋째, 山陵都監儀軌의 현전으로 인하여 왕릉 석물을 담당한 石手와 대표자인 邊首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石手 邊首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왕릉 석물의 양식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18세기에는 華城城役나 西關營建都監 등 건축물의 조영에도 동일한 인물이 확인되고 있어 조각과 건축 등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왕릉 석물의 밑그림은 畫員이 담당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석물의 도설뿐만 아니라 모든 五禮의 도설은 상설아문 소속의 화원이 그렸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문헌에 석물의 도설이 등장하는 것은 『國朝喪禮補編』(1752)과 『春官通考』(1787)에 보이는데, 의궤로서는 『顯慶園園所都監儀軌』(1789)에서 나타나고 이후, 『健陵山陵都監儀軌』(1800)부터는 꾸준히 도설이 그려진다.

이 논문에서는 왕릉 석인을 중심으로 17-18세기의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추후에는 석인 뿐만 아닌 장명등, 호석, 망주석, 각종 동물석 등의 모든 유기적인 연관성과 궁궐 건축, 왕릉이 아닌 일반 사대부들의 園墓 석물들, 불교 조각과의 관련성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왕릉(Royal Tomb), 석물(Stone Statue), 석수(Sculptor), 조선시대 조각(Figure of Joseon Period), 도감의궤(Dogamuigwe)

▣ 투고일 2005년 11월 3일 | 심사일 2006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2006년 2월 10일 ▣

국문초록

왕릉 석물은 조선시대 조각사를 대표하는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조각이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조각품이다. 조선시대 왕릉 석물들은 국가왕실의 조직적 주도 아래 당대의 솜씨 있는 畫員과 장인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응집하여 역량을 발휘한, 당대 문화의 정수이다. 특히 조선후기는 왕릉 석물 제작에 따른 일체의 작업과정을 기록한 山陵都監儀軌가 현전하여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 미술사연구의 주요 편년자료가 된다.

조선후기 왕릉 석물 설치의 문헌상 기준이 된 것은 『國朝續五禮儀』(1744)와 『續大典』(1746)이다. 또한 『國朝喪禮補編』(1752)과 『春官通考』(1787) 등에는 문무인석 圖說이 등장하여 문헌상의 규정을 알 수 있고, 의례에서는 『鄧隆園園所都監儀軌』(1789), 『健陵山陵都監儀軌』(1800) 등에서 각종 석물의 도설과 규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왕릉 석물의 밑그림은 대부석소 소속의 화원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起畫' 제작단계에서 석물의 도상과 종류, 형태, 치수 등의 밑그림과 마무리단계에서의 후일에 참고로 삼기 위해 만드는 의례의 도설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1789년 『현릉원산릉도감의례』의 석인 도설은 화원 許確이 그린 것으로 보이고, 正祖健陵山陵都監(1800)에는 화원 金應洙가, 文祖綏陵山陵都監(1846)에는 화원 劉運弘이 참여하여 도설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릉과 수릉의 석인은 도설과 매우 유사하여 18-19세기에 이르면 석물제작에 있어서 대부석소 소속 화원의 역할이 점점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산릉도감의례에 의하면 조선후기 왕릉 석물을 조각한 장인은 '石手'이고, 그 석수의 우두머리는 邊手라고 불렀다. 석수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변수 그룹은 17세기 중반-18세기 초반까지 활약한 李希善, 李景立, 崔天男 그룹이다. 이들이 만든 왕릉 석물은 寧陵(1674), 崇陵(1675), 翼陵(1680), 徽陵(1688) 등인데 이들은 매우 웅장하고 장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701년 인현왕후 明陵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 석물의 간소화 경향이 짙어지는데, 이전의 장대하고 단순한 석물을 보다 정교하고 자유스러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18세기 중반의 朴弼心, 崔萬成 변수 그룹은 弘陵(1757)과 인원왕후 明陵(1757)의 석인을 만들었다. 이후 18세기 金大輝, 鄭有福 석수 그룹은 왕릉에서는 처음으로 양관조복을 갖춘 문인석이 등장하고, 양당식 갑옷 및 삼지창형 투구 등 현실의 복식을 반영한 석인이 등장한다.

ABSTRACT

A Study of Stone Statues at Royal Tombs of the Late Joseon Dynasty

Kim Eunsun

Stone attendants, protecting royal tombs, are major figures decorating tombs and showing the dignity of a royal family. Stone attendants look majestic and strong, and their shapes are rather more abstract than realistic and are very rigid so that they emphasize their main function of protecting and decorating the tomb.

Stone figures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Dynasty have historiographical value because they are inscribed with the exact year of their production, and many different tombs, both royal and aristocratic tombs, remain in Korea. Particularly, stone statues of royal tombs of the late Joseon Dynasty have higher art historical value because it is possible to trace the exact year, the procedure of carving, and the artists and their schools from the ceremonial document which are called *Sanreungdogam uigwe* (山陵都監儀軌). I deal with all stone attendants in royal and aristocrat tombs focused o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n my theses.

The form and style of stone figures of royal tombs in the late Joseon period originated from Hyeonjeongreung (the royal tomb of King Gongmim of the Koryo Dynasty, 1372) and Geonwonreung (the royal tomb of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 1408) under the influence of tombs of the Song and Ming Dynasties of China. But Jeoson tombs also developed unique compositions and styles such as the folding-screen-style stone, tomb rail stone, and lantern. Also stone figures of this period reveal details of the face and the cloth of the period realistically.

Sanreungdogam took the responsibility for construction of royal tombs in the Joseon period and they published ceremonial documents called *Sanreungdogam uigwe*. According to this record, the department of Daebuseokso (大浮石所). Head sculptor, called *Byeonsu* (邊首),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stone figures and it took four to eight months for the completion of stone figures for one tomb. Many figures remain of the sculptors of Yi Huseon (李希善), Yi Gyeongnip (李景立), and Choi Cheonnam (崔天男), and the sculptors of Bak Pilsim (朴弼心) and Choi Manseong (崔萬成) who made the stone figures in Hongreung (弘陵, 1757) and Myeongreung (明陵, 1757). These sculptor were famous for beautiful and delicate figures.

The characteristic of the 17th century is the square-shaped body of figures. They are composed of three body portions which are the head, the upper and the lower parts of the body. This period formalized very abstract shapes which have no curves in the shape of the body and rigid and heavy figures. The typical examples of this period are the figures in Sungreung (崇陵, 1675), Ikreung (翼陵, 1680), Hwireung (徽陵, 1688).

The figures of the later of 18th century have a very natural and realistic composition, with beautiful curves to the body,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face, and the delicate engraving of cloth. The representative works of this period are the figures in Hongreung (弘陵, 1757), Myeongreung (明陵, 1757), Yungreung (隆陵, 1787), Geonreung (健陵, 1800).